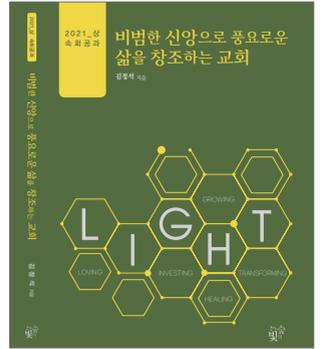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

(신 2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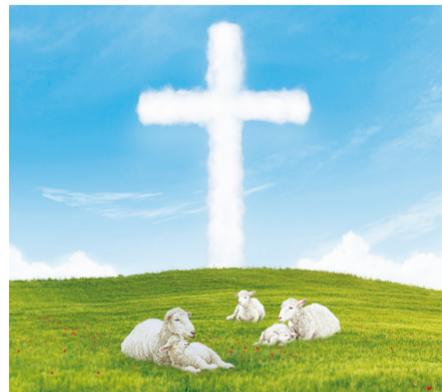
청지기 주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풍요로운 삶 창조

신년 1월 둘째 주일은 광림교회가 청지기 주일로 섬기는 날이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위원장들이 임명되고, 성도들도 올 한 해 봉사하게 될 부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며, 청지기 직분은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를 말한다. 성경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고 하였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광림교회는 2021년 표어를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신 26:11)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정석 담임목사는 "비범한 신앙은 신비로움이나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비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을 하며 늘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일하

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전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년 초 교회 본당에서 갖던 '임원전지훈련'이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하였다.

교회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성되는데,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집사는 교인된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권사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자로서,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 인도와 신자들을 심방하고,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고 하였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기로 결단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

에서 권사로 새롭게 부름을 받게 될 때는 또 다른 느낌의 다짐을 하게 된다.

교회학교에서 고등부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이번에 새 직분을 받게 된 문지현 권사(7교구)는 "집사일 때는 다소 내 고집만을 강조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권사가 되고 보니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교사로서도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진정되어 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교회로 나와 대면예배를 보는 날이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고 교사로서의 바램을 말하였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뒤따르게 된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마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4:15~21, 막 6:30~44, 눅 9:11~17, 요 6:1~15).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가 굶주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 필요를 넘어서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만을 보고 이면에 담긴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구 혹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 받아야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우둔한 생각마저도 받아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품어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공허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34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바로 ‘공허합니다. 공허는 원어적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곤고함과 배고픔, 갈급함을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을 공허히 여기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방황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여 빈들까지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그들은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커서 날이 저물어가는 것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굶주렸을 무리들을 공허히 여기셔서 육체적인 필요를 책임져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44절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알날이 고하니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 사 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백 테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39. 제자

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떡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 있더라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허히 여기셨기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허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허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허히 여김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공허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이백 테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37절)라고 묻습니다. 1 테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수를 대략적으로 본 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약 200 테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제자리에 서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더 빨랐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현재 무리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떡의 수를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축사하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의 계산과는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제자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며 인도해줍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삶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38절)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보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턱없이 부족해보이는 양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하찮아 보이거나 작아 보일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주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에 위문 금품 전달

사랑과 희망을 수용자들에게 전달



1월 8일(금) 서울남연회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위문 금품을 전달했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서울구치소를 방

문한 자리에서 위문 금품을 전달하게 된 취지에 대해 전하면서 “언론을 통해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다.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광림교회 여성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영 권사), 서울남연회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사랑과 희망을 수용자들에게 전해드리길 원한다. 수용자들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용자들이 세상에 나올 때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대한 간소하게 진

행된 전달식에서 서울구치소 신용해 소장은 “전달해주신 위문금과 마스크는 구치소 내 2,500여 수용자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위중한 시기에 감리교회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전달된 위문금과 마스크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을 위한 영치금과 보건, 간식을 위해 소중하

김대영 목사(문화홍보실)

서울남연회 신년 교역자 금식 성회

1월 21~22일 광림교회 본당에서



2021년 서울남연회 모든 교역자가 참여하는 신년 교역자 금식 성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성회는 1월 21일(목) 오후 2시를 시작으로, 오후 6시, 22일(금)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에 총 5번 집회와 기도회로 금

식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드렸다. 첫째날 이철 감독회장이 ‘이같이 하면’(벧후 1: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날 김정석 감독이 집례한 성찬예식은 개인별 성찬키트로 성찬분급이 진행되었다.

성회 기간 참여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를 이어간 이번 성회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줌(ZOOM)을 통해 서울남연회 준회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했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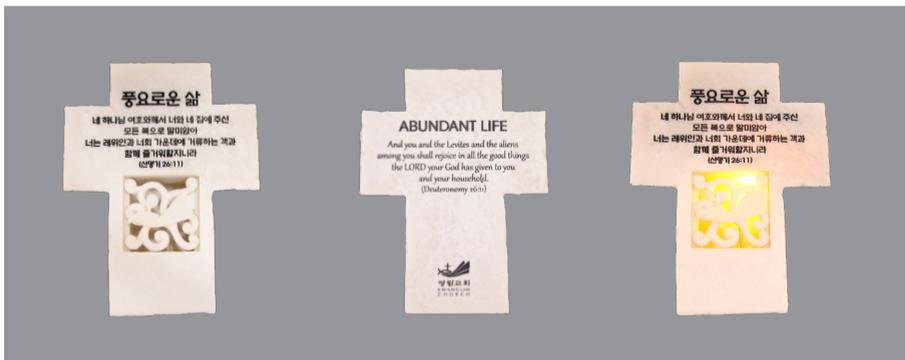
기도회에는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지방과 연회와 감리교회를 위하여, 팬데믹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김정석 감독은 인사말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여는 2021년이 회복과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풍요로운 삶’을 향해가는 성도들에게

2021년 대심방 선물 < 십자가 >



2021년 광림교회 성도들을 위한 대심방 선물은 흰색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이다. 하얀 십자가는 순결을 의미한다. 전면에는 올해 표어 주제인 ‘풍요로운 삶’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 26:11) 말씀이 새겨져 있다.

성도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하는 십자가 아랫부분에는 광림교회 심벌과, 풍요를 상징하는 생명의 줄기가 조각되어 있다. 또 십자가 안을 밝히는 불빛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풍요는 나눔과 베품에 있다.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하나님은 영과 육의

풍요로움을 더하시며 더욱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

대심방은 일 년에 한번 선교구 담당 목사와 전도사, 지구장이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예배드리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위로와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매년 광림교회에서는 대심방 때 축복의 선물을 마련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올해도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의 광림교회 성도들은 빛으로 나아가 세상을 밝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포토 뉴스



사랑부 교사임명 및 광림 총회
사랑부 교사임명 및 광림 총회가
1월 24일 예수와홀에서 열렸다.



여성교회총연합회 월례회
2021여성교회총연합회 월례회가
1월 24일 본당에서 열렸다.



온라인 속회
온라인 속회 바로가기 QR코드



365일 매일예배서
개인묵상집, 매일가정예배서로
활용할 수 있다.

담임목사 동정



- 1/12 서울남연회 주요사업위원회
- 1/13 이슬람연구원이사회
- 1/15 KMCUMC선교전략회의
- 1/17 성가대임명예배
- 1/19 강남지방교역자회의
기획위원회
- 1/21~22 서울남연회교역자금식성회
- 1/24 사단법인 광림 총회
- 1/29 부흥단총회
총회실행부위원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거듭난 삶의 은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1)

수년 전 세상의 오만함으로 높아짐의 자리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오던 때가 있었다. 보이는 것에 손 내밀고 살아온 어느 날부터 아내의 강권적 권면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당신 속회와 선교회 모임에 내가 대신 가야 하나”고 묻는 아내 최정순 권사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아내는 하루빨리 남편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내 신발을 가슴에 품고 나를 대신해서 속회와 선교회 등 모든 모임에 대신 참석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석 집사님께서 선교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장에 심방을 오셨다. 대화하는 동안 진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집사님을 보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만남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회 모임에 첫 걸음을 하게 되며 선교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친교 했고 속회에배에까지 열심을 다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몇 해가 지났을까, 교구 전도사님께서 스테판 선교회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있어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헌신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의 앞길을 인도하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을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위기의 시대에도 고센 땅처럼 복되게 하셨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4선교구연합회장의 직분을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매일 매일의 삶에 감사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박종석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4선교구연합회장)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21교구 새가족남성속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 4:9)

21교구 새가족남성속회는 최근에 21교구에서 이사 오거나, 새가족실에서 교육을 이수한 성도와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속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속회에배 뿐만 아니라 광림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속회의 목적이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8시에 모임을 갖고 있다. 교구 교역자들의 권면과 기도로 2020년 1월 2일 루체포레에서 3명의 속도원이 모여 첫 속회가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첫 모임부터 매주 10명 이상이 모이길 기도하였고, 지금은 5명 이상이 참석하여 은혜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남성속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속회와 선교회처럼 모임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속도원 중에 어린 자녀를 키우

는 집도 많아서 오프라인 속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라고 권면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필 권사는 사랑으로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주 단독방에서 속회공지와 안부를 물었다. 또한 남성속회에서 간사역할을 맡아 전화심방 뿐만 아니라 속도원 집 앞까지 찾아가 교구 내에서 준비한 선물이나 명절예배문, 뉴스레터, 속회공과 등을 전달했다. 작년 연말에는 교회에 모여서 단체 사진도 찍고 직장심방도 다니는 사이로 돈독해졌다.

꾸준히 온라인 속회 통해 교제 지속해 줌(Zoom)같은 온라인 속회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말씀으로 신앙의 밑거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속회모임을 시도했다. 5명 이상의 속도원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평일 날 카톡에서 웃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 또한 큰 기동

과 뿌리처럼 남성속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준 이제는 장로, 남상모 권사의 후원과 기도, 신실한 말씀 증거가 있었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다.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어느새 13명의 속도원으로 불어났고 2020년 12월 마지막 속회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구성원 중 절반이 참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식사와 모임 등의 교제가 여의치 않겠지만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는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참석할 새가족을 믿음으로 이끌고, 서먹함을 무릅쓰고 나온 속도원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기도로 준비하는 21교구 속회 예배는 2021년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유병권 기자 ybpower@empas.com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세미나하우스

코로나19 경증 환자 위한 생활치유공간으로 개방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리”(롬 12:15)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과 힘겹게 사투해온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확진자 수의 증가와 감염 우려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도들은 속히 이 땅이 회복되어 일상의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역경과 환란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12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림교회는 포천에 위치한 광림세미나하우스를 코로나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유공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던 작년 3월에도 방역 당국에 교회 부속시설을 코로나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공간으로 개방한 적이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병원은 아니지만 상주 의료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에 입원 조치하기도 한다.

온전히 치유함 받는 쉼의 공간
세미나하우스 본관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6층의 본관건물에는 106개의 객실이 있으며, 화장실이 갖추어진 2인실도 70여개가 있다. 또한 층마다 30명 이상 머물 수 있는 대형 운동장과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어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위한 공간도 넉넉하다. 1층 출입문도 세 곳으로 구별되어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세미나하우스에 환자가 입소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 준비가 되어있다.

양원식 권사(세미나하우스 위원장)는 “세미나하우스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경증 환자들이 오진 않았지만 서울에서 실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Go beyond Recovery to Revival)”

<청년부 온라인 임원전지훈련>



광림교회 청년부는 1월 16일(토)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2021년 임원전지훈련’을 개최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청년부 임원(교구장, 지구장, 속장, 사역팀장)들이 참여하여 2021년 광림교회 청년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임원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는 예배로 시작한 임원전지훈련은 임원 교육, 2021년 청년부 목회 계획 발표, 파송 및 기도회,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2021년 청년부를 향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새롭게 헌신하게 된 신입 임원들의 한 줄 평입니다. 임원전지훈련에 참여했던

강성모 교구장은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교역자와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만큼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현 속장은 “예전에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직접 자료를 뽑으며 준비하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임

원전지훈련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집중을 높이기 위한 재미있는 시간들로 인해 분위기 전환도 되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자연 속장은 “속장이 되며 부담이 매우 컸지만, 이번에 임원전지훈련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이 자리를 맡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청년부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달려갑니다. LFC 청년부의 부흥(1,000명의 예배자, 100개 속회), 감리교회 다음세대 부흥(교육선교), 한국교회 청년 부흥(성령한국), 세계 교회의 부흥(100개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해 쓰임 받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안녕하세요. 청년부 1교구 93포레 권소리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자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보다는 친구들을 보러 가는 것이 즐거웠던 아이였습니다. 신앙이 없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1살에 친구의 전도로 이 곳 광림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늘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었던 긴 시간동안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늘 제 곁에 예배하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 삶에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워진 것에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를 할 때면 늘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입니다. 저희 가정은 할머니의 기도로 가정의 예배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제가 세워졌고, 이제는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기도를 하다보면 문득 이 사실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 왜 하필 저인가요?"라는 물음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할머니와의 통화로 위로를 주셨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정의 예배를 열어주시며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저의 삶을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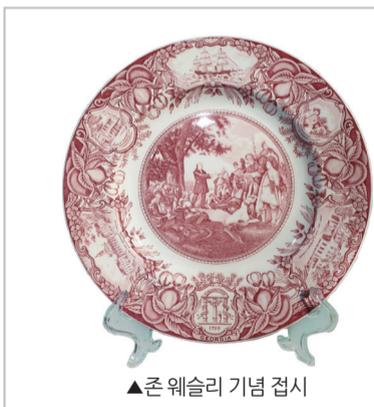


권소리 속장(청년부)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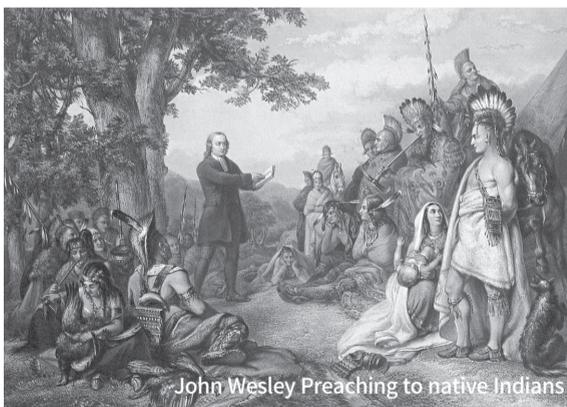
존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



▲존 웨슬리 기념 접시



▲존 웨슬리 기념 접시 윗부분, 아랫부분



John Wesley Preaching to native Indians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에 전시된 여러 기념 접시 중에는 복숭아색과 크림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존 웨슬리 기념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는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인 웨지우드에서 제작되었는데, 파란색과 복숭아색 두 가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4년 아버지로부터 그의 고향인 애플위스에서 목회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스퍼드에 계속 남길 원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웨슬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애플위로 가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

메리카 대륙에 조지아 식민지 건설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러 복잡한 심경을 갖고 조지아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그의 선교 목적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여러 난관에 부딪혔고 결국 조지아 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이 존 웨슬리를 회심으로 나아가게 했으며, 훗날 감리교회 운동과 아메리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려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접시 중앙에 그려진 그림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

웨슬리가 그려져 있으며, 이 그림은 런던 웰컴 라이브러리(Wellcome Library)가 소장하고 있는 "John Wesley Preaching to native Indians" 그림을 전사한 것입니다.

접시의 윗부분에는 대서양을 횡단했던 최초의 증기선 사바나 호가, 아랫부분에는 조지아주가 세워진 해인 1799년이 기록되어 있으며, 접시를 장식하고 있는 복숭아 그림은 조지아주의 상징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예수 믿는게 최고요”

- 목회현장 -



전선욱 목사(광림사랑의집)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의 첫 발 걸음은 '광림사랑의집'에서 출발합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이었던 송형섭 어르신이 한파의 소식이 가득한 2021년 1월 8일,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16세와 11세의 두 형제가 부모없이 도착한 사할린의 추위는 얼마나 춥고 지독했는지. 일어와 소련어도 배워야 합니다. 추위와 맞서며 살기 위해 일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을 위해 얼어붙은 땅에서 벌목 공으로 땀 흘렸을 때, 눈물도 함께 흘렸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 요다시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사랑의집'을 찾아 어르신들 앞에 일제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십년을 쓰지 않았던 일어인데,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운 언어는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자세마져 차렷 자세로 곧추 세웠습니다.

송형섭 어르신이 일본어와 러시아 말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송형섭이요”라고 하시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 예수 믿는게 최고요”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 일본 목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일본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광림사랑의집'에 터를 잡고 시작한 믿음의 삶입니다. 나라의 험난한 시절, 외로움과 추위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르신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녹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장례예배에서는 어르신이 즐겨 부르시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송했습니다. 송형섭 어르신에게 이 찬송의 가사들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찬송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깊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올프레이즈 찬양단>

<광림남교회>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예배 참석이 어려워지고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상황 속에도 매주일 저녁예배와 금요은혜의 밤 찬양 인도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올프레이즈찬양단.

광림남교회 찬양단의 이력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던 신성섭 장로님의 적극적인 권면으로 박정규 권사, 최윤배 권사를 주축으로 김홍철 권사, 배동진/최혜진 집사 부부, 정미경 집사, 정희선 집사 등이 합류하여 찬양단이 창단되었고, 조성환 목사님께서 '두나미스찬양단'이라고 명명해주셨습니다. 그해 4월부터 주일저녁예배 찬양인도를 시작으로 통일성취기도회, 군부대 세례식, 남선교회연합회 월례회와 송년회, 새가족 송년모임, 수도원산상기도회, 창단기념 감사예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축멤버의 결원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3년 '올프레이즈찬

양단'이 창단(배동진/최혜진 집사 부부, 김정아 집사, 이종은 집사)되어 주일저녁예배를 섬기며 활동하였고, 2014년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2015년 잠시 타교단의 대형교회에서 홍보/기획담당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갖던 중, 참으로 다양한 그룹의 찬양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보았습니다. 찬양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기도하며 조속한 찬양단의 활동재개를 모색하던 차에, 마침 찬양에 지극한 열정을 가지셨던 전원석 목사님께서 발벗고 나서주셔서 2017년 1월 '제2기 올프레이즈찬양단'이 재창단될 수 있었습니다.

창단 초기 매주일 저녁예배를 섬기는 것이 단원들에게 무리가 될 것 같은 마음에 격주로 섬기는 안을 내놓은 저였지만, 차재훈/임은미 집사 부부의 강력한 어필로 매주 섬기기로 결정을 하였고, 오히려 신앙의 연륜만 길었지 믿음이 부족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유제석 목사님께서 찬양단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정말 많은 단원들(단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환 집사(베이스기타), 원숙이 집사, 강태안 권사, 김태연/윤은희 집사 부부, 김소니 집사, 조경필/장현정 집사 부부, 연지민 집사, 문승아 집사, 최미진 집사, 이해경 집사, 김환희 집사, 이훈익/서재희 집사 부부, 조민정 집사, 화종인 형제(드럼)가 자원하여 입단하였습니다.

비록 학업 중인 자녀들을 둔 젊은 단원들이 코로나상황으로 많이 못 나오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찬양의 열정으로 섬겨주고 계신 모든 단원들, 그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광림남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 성령의 불길기 힘차게 타고르고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크게 크게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최윤배 권사(교육부)

광림북교회에 세워진 일곱 명의 신천 집사

<광림북교회>



2021년 1월 신년 주일, 광림북교회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신천 집사님들께 꽃바구니를 증정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연말 목회세미나 때 북교회에서 일곱 명의 성도님들이 신천 집사로 추천되었고, 당회 구역회를 통하여 담임목사님께서 인준해 주셔서 광림북교회에 정식으로 신천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집사님들은 북교회가 세워지고 등록 후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신 분들이기에 집사 임명이 더욱 뜻 깊었습니다.

추천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임명된 신천 집사님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딱 일곱 분 이셨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의 수와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날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천 집사로 세워진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김보연 집사님은 한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곳곳이 선교회로 활동하며 제단을 아름

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장과 마리아 선교회장을 맡아서 이끌면서 젊은 세대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김건호 집사님은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겨주시면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지도 및 양육하고 있으며, 남성 속회 속장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속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민재 집사님은 스테반 회장과 성가대원으로, 박지훈 집사님은 아동부 교사로, 최성안 집사님은 아동부 총무로, 김한나 집사님은 2부, 3부 예배 반주로, 명선화 집사님은 교회 간사로, 일곱 명의 집사님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님들 모두 30~40대입니다. 그러기에 북교회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초대교회에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진 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광림북교회도 일곱 분의 신천 집사님들을 통하여 2021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2021년 광림교회 신임 위원장 비전과 각오

지난 1월 10일 청지기 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각 기관과 부서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위원장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의 종과 성도들을 섬기며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새롭게 임명된 4명의 위원장들의 비전과 각오를 들어보았다.

실업인 선교회 권후원 장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광림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길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광림실업인선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2021년 실업인선교회의 표어는 '비범한 신앙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실업인선교회'입니다. 광림실업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주신 기업의 주인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기업을 통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헌신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코로나로 제약 요소가 많지만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영성을 삶에 온전히 적용,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기독교 실업인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경영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임은 삼가하겠습니다. 넷째, 초대교회 오네시모와 같이 담임목사님의 선교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광림교회 내에서 가장 잘 섬기고 겸손한 조직이 되어 많은 교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거듭나겠습니다. 여섯째, 교회내의 여러 지체들과 협력하고 나누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광림 실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치3부위원회 김혜정 권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일 아침 뜻밖의 소식을 듣고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유치3부 위원장 김혜정 권사” 저는 동명이인인 다른 권사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미 결정된 일이고 직분은 맡겨졌습니다.



저는 광림교회에 적응 둔 그 다음 해부터 36년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가대원들의 사랑 안에서 믿음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여성교회 총연합회 일을 맡아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육국이라니, 낯설고 생소한 분야라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하늘나라 입국 비자심사에 봉사이력이 부족해 발탁하셨나보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저의 능력도, 건강도 일을 맡기신 그 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저 지혜를 간구하며 성실히 감당해 나가려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맡았지만 유치3부가 더욱 부흥하며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교사들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부서로 주님께 칭찬 받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등교육위원회 맹경호 권사

지난 며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등교육 위원장. 낯설고 생경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성가대로 봉사해 온 저는 혹시라도 제가 전공하고 평생을 일해 온 건물 기계설비와 관련된 교회일이 주어진다 하면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현업에서 은퇴한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 보다 더 바쁘게 올 한해 보내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 주의 일을 할 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초등교육 위원장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제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초등부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도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결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배경호 권사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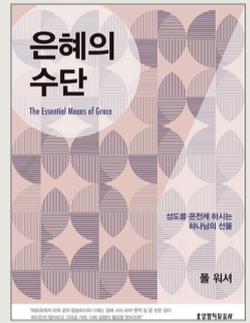
사회사업위원회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말씀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인들과 교회사설 등에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광림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령층에 상관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사회사업위원회 위원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참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작은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은혜의 수단]

폴 워셔 지음

효율을 좋아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 적은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거두려는 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적은 노력으로 비범한 신앙인이 되려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와 성도를 향해 오랜 세월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기 위해 활용해 온 은혜의 수단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력이나 대가 없이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릇된 신앙을 꼬집는다.



[담대한 믿음]

조너선 스티븐 지음

삶이 어렵고 힘겨워지고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때가 있다. 이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이 빠지고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삶이 마치 폭풍을 마주한 작은 배와 같이 좌초될 것만 같아 불안해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책은 폭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8장과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연결하여 '겨자씨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